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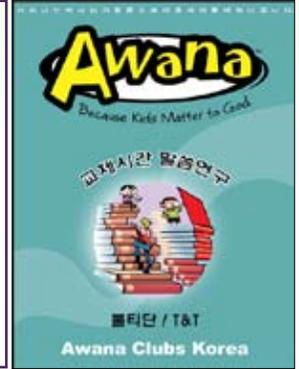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말자.

■ 목적 :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 목표 : 이과의 결과

1. 누가복음 17:11-18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알게 되고
2. 베풀어 준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알려
3.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생각해 본다.

■ 준비물 : 만화를 그릴 종이, 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칠판과 분필(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보재)



■ 말씀 준비(2~3분)

아래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린이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말해 줍니다.

수희는 주말 시간을 온통 들여 마침내 그것을 해냈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만들어 본 생일선물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것 같았습니다. '희숙이가 이것을 받으면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희숙이가 이런 곰 모양 저금통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내 돈을 다 털어서 물감을 사서 칠한 거예요."

그 날 오후 수희는 곰 저금통을 상자에 넣고 예쁜 포장지로 싸면서 '지금 희숙이에게 가져다주면 되겠지? 희숙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한데?'하고 생각했습니다. 수희가 희숙이네 집으로 가는 길에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은 생각은 '혹시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수희는 희숙이네 집에 도착하여서 초조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수희 안녕?"하며 희숙이가 내다보았습니다. "들어와 지금 미라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 "네 생일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서 왔어.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하며 수희는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니?"하며 희숙이는 뺏다시피 선물을 잡더니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마구 풀었습니다. "어머, 어머, 곰 저금통이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니 희숙이는 재빨리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희는 한참 동안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희숙이는 밖으로 나와 보지 않았습니. 약간 어색해진 수희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희가 현관문을 닫고 돌아

서는데 방 안에서 희숙이와 미라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두 개의 칸이 있는 종이와 싸인펜을 나누어 줍니다.

첫번째 칸에는 수희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리도록 합니다.

희숙이는 친절하지 않았습니. 수희의 모습이 어떠했으리라 생각합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두 번째 칸에는 희숙이가 수희에게 어떤 태도를 했어야 했는지 그리도록 합니다.

희숙이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습니까?
여러분의 두번째 그림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희숙이는 수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 선물에 대하여 감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 말씀 연구(4~5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위하여 뭔가를 베풀어 주었을 때에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나병 환자 한 무리를 고쳐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 번 보기로 합시다.

<열명의 나병환자>

어린이 설교

- 연극 등장인물 : 해설자, 예수님, 나병환자들

해설자가 누가복음 17장 11~18절의 내용을 읽는 동안에 어린이가 역할극을 하도록 한다. 무대 앞 한쪽에는 나병환자들을, 반대쪽에는 집 모양을 마련해 놓는다.

해설자 :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나병이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병에 걸리면 자기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야 했습니다.

나병환자 모습을 한 사람이 집을 떠나 반대 쪽 나병환자들이 있는 쪽으로 간다.

해설자 : 그 나병환자는 다른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 경고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나병환자 들이 있는 곳을 한 사람이 지나간다.

나병환자들 :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설자 :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을로 들어서는 데 나병환자 10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 예수와 나병환자들과의 만남 =

나병환자들 : 예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해설자 :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는 돌아와 예수님께로 다시 왔습니다.

한 병자가 예수께로 나와 소리 높인다.

나병환자 :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 너희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나병환자와 예수는 집 쪽으로 퇴장한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 깊게 연극을 보았는지 봅시다.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습니까? 그 중에 몇 명이 자기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다른 아홉 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오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환자를 고쳐주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갈 수 있게도 해 주셨습니다. 치료 받은 병자들은 이런 점에서 두 배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9명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 말씀 해석(3~4분)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나병환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린 나병환자와 같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과 같이 행동했음에도 모릅니다.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 버렸음에도 모릅니다.

9명의 환자는 고침 받은 것이 너무 흥분되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베푼 행위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상대방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어떤 것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줍니다.
- 2) 내가 상대방이 베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줍니다.
- 3) 예의 바름을 나타내 줍니다.
- 4)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 5)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어느 때에 감사하다고 할 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칠판에 '감사하다고 말할 때'라는 문장을 적고, 어린이들의 대답을 그 밑에 기록합니다.

상대방이 베푼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10명중 한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 말씀 적용(1분)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간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생활화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리 작은 일을 베풀어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상대방의 기뻐하는 표정과 미소에 여러분은 마음이 환해 질 것입니다.

